

해외의약뉴스

저체중 노인,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 높다

개요

알츠하이머 저널(Journal of Alzheimer's Disease)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최근 62~90세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체중 노인에서 기억 상실을 초래하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높다고 밝혔다.

키워드

저체중, 노인, 알츠하이머, 베타 아밀로이드

매사추세츠 종합병원(미국 보스턴 하버드대학 부속병원) 연구진은 최근 62~90세의 건강한 노인 280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 유전자 검사, 뇌 스캔을 시행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저체중은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단백질)의 광범위한 침착과 연관이 있었다. 특히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APOE4 변이 유전자를 가졌을 경우, 베타 아밀로이드의 침착과 강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밝혔다.

마셜박사(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신경과 전문의, 하버드 의대 신경과 조교수)는 “대뇌의 아밀로이드 상승은 알츠하이머의 초기 단계로 이 연구는 저체중 노인의 경우 알츠하이머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알츠하이머의 강력한 표지인자와의 연관성은 나이가 들면서 저체중이 되는 것이 뇌 건강에 있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저체중과 치매 위험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저체중과 아밀로이드 수치 증가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셜박사는 “신체질량지수¹⁾(body mass index, BMI) 수치가 낮다는 것은 곧 체력 저하, 운동성 감소, 신체 허약 등을 암시하는 것이며,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과도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1) 신체질량지수(BMI)란 신장과 체중의 비율을 사용한 체중의 객관적인 지수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BMI가 18.5 이하인 경우 저체중, 18.5~24.9인 경우 정상 체중, 25.0~29.9인 경우 과체중으로 간주한다.

■ 원문정보 ■

https://medlineplus.gov/news/fullstory_160278.html